

의안 번호	3661
----------	------

연강속으로  
시민결의로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6. 4. 20.

서울특별시의회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I 특별위원회 구성

### □ 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에 따라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고자 구성된 것임.

### □ 추진경위

- 2025년 2월 3일, 이종배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11명 찬성)되었음.
- 이에 2025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및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고, 이종배 의원 외 12인의 위원이 선임됨.
- 2025년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금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함.

- 2025년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으로부터 마약퇴치 예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음.
- 2025년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가결되었음.

※ 기존 활동기간 : 2025. 4. 30. ~ 2025. 10. 31. (6개월)

연장기간 : 2025. 11. 1. ~ 2026. 4. 30. (1년)

-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으로부터 마약퇴치 예방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함.
- 2026년 4월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함.

## □ 위원 및 직원명단

○ 위원명단(13명)

구분	의 원 명	지 역 구	상임위	비 고	비고
위원장	이종배	비 레	문화체육관광	국 민 의 힘	2026.3.11. 퇴 직
부위원장	이효원	비 레	교 육	국 민 의 힘	
부위원장	오금란	노 원 2	보 건 복 지	더불어민주당	
위원	구미경	성 동 2	기 획 경 제	국 민 의 힘	
위원	김경훈	강 서 5	교 육	국 민 의 힘	
위원	김용호	용 산 1	도시안전건설	국 민 의 힘	
위원	김종길	영등포2	주 택 공 간	국 민 의 힘	
위원	문성호	서대문2	교 통	국 민 의 힘	
위원	이종환	강 북 1	보 건 복 지	국 민 의 힘	
위원	황유정	비 레	기 획 경 제	국 민 의 힘	
위원	김기덕	마 포 4	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	
위원	박유진	은 평 3	기 획 경 제	더불어민주당	
위원	정준호	은 평 4	교 통	더불어민주당	

○ 직원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2	교육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	김성룡	
3	교육전문위원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4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지원팀장	이흥기	
5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가영	
6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김지수	
7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진석	
8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김명신	
9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현주	
10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명규	
11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백제리	
12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최재현	
13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백경하	
14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진우	
-	의사담당관	속기및녹취요원	2명	
-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6명	

## II

##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 □ 개요

- 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 ※ 2026. 3. 11. 퇴직
- 부위원장: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
- 위원: 총 13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활동기간: 2025. 4. 30.(수) ~ 2026. 4. 30.(목) (1년)  
※ 기존 활동기간 : 2025. 4. 30. ~ 2025. 10. 31. (6개월)  
연장기간 : 2025. 11. 1. ~ 2026. 4. 30. (6개월)

### □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6. 10.(화), 15:0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회의 주요 내용
  - 위원별 인사말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세부 일정 논의

직 위	위원명	소속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효원	교육위원회	비례	국민의힘	
부위원장	오금란	보건복지위원회	노원2	더불어민주당	

○ 회의 사진



□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8. 27.(수), 15: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 보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회의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마약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민국 입국 단계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 2) 예방교육

- ▶ 정보전달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개선 필요
- ▶ 예방교육 자료는 재미·흥미 위주가 아니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 교육청 예방교육 자료가 마약(약물)을 고카페인·음주·흡연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지적
- ▶ 청소년뿐 아니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치료, 재활 포함) 확대 필요

## 3) 정기적인 마약검사

-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마약 전수검사 검토 요청
- ▶ 공무원 신규 채용, 건강검진, 학생 신체검사 등에 마약검사 포함을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 검토

## 4) 기타

- ▶ 온라인 구매, 가상화폐 결제 등으로 마약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 경험 증가도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방통위를 통한 사이트 차단·폐쇄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임
- ▶ 신고 방법 홍보 강화, 마약 간이검사 버스 운영, 마약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검토
- ▶ 여러 기관·부서가 협력할 수 있다는 특위의 장점을 살려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이종배, 이효원, 구미경, 김경훈, 김종길, 이종환, 정준호, 황유정),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 회의 사진



## □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5. 9. 8.(월), 10:00 ~ 12:0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별관2동 2층)
- 주제 :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 참여 : 약 50명(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
- 좌장 : 이종배(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서울특별시 마약대응 정책 로드맵
    - ▶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안
    - ▶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 제안
    - ▶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토론

- ▶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 ▶ 김나미 (삼육대 중독과학과 교수)
- ▶ 길우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 ▶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

○ 토론회 사진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12. 16.(화), 10:3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 보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회의 주요 내용

1) 마약 예방교육 교재 및 교육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인 의견 청취(삼육대학교 김나미 교수, 상암고등학교 한은진 교사)

- ▶ 친근한 사람들을 통한 조기 교육, 사회정서적 지능 향상 교육과 연동된 교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포맷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 디테일하고 섬세한 교육 필요성
- ▶ 제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한 마약 예방교육, 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예산, 인력 투자 필요
- ▶ 학생 눈높이에 맞춘 쇼츠 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검토 요청
-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 교재와 교육방법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요청

## 2) 기타

- ▶ 공공의료에서 전문 치료기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 강화
-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검토 요청
- ▶ 학교교육 및 가정교육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업 노력 요청

## ○ 회의 사진



- 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이종배, 이효원, 구미경, 김용호, 문성호, 황유정, 정준호),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교사

## □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6. 4. 20.(월), 15:00
-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배포내역

- 보도자료 제공 목록(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일시	보도자료명
1	'25.6.1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2	'25.6.11.	이효원 서울시의원, 마약 근절에 힘 보탠다...마약퇴치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3	'25.6.24.	이종배 마약예방특위 위원장, "전쟁하듯 마약예방교육 해야" 마약퇴치 행사서 호소
4	'25.8.12.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 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5	'25.8.28.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청소년 등 전연령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대책 필요"
6	'25.8.28.	세관 뚫고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연번	일시	보도자료명
7	'25.8.29.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 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8	'25.8.29.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9	'25.9.8.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10	'25.9.9.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11	'25.9.22.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이종배 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12	'25.11.7.	이종배 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서울시가 홍보 통해 경각심 높여야"
13	'25.11.11.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14	'25.11.26.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면 재정비해야"
15	'25.12.17.	이종배 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16	'25.12.17.	정준호 서울시의원,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 시민 인식 왜곡 우려에 행정 차원 점검·명칭 개선 적극 추진해야"
17	'25.12.18.	서울시의회,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실현 위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18	'26.1.28.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다...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19	'26.1.29.	이종배 시의원, "서울 청소년 마약류 유입, SNS·텔레그램이 10명 중 8명"
20	'26.2.29.	이종배 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권고 넘어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 **위원회 제안 의안 세부내역** (세부 내용은 [붙임 3] 참조)

○ **안전심사 결과**

차수	일시	안전	제안자	본회의 심사결과
제2차	2025. 8.27. (수)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3128)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장	원안 가결 <b>2025.9.5.(금)</b>
제4차	2026. 4.20. (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장	예정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장	예정

○ **안전 주요내용**

안전명	내용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3128)	<p>가. 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범죄 확산과 함께 해외여행객이 마약 투약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마저 발생해 국민 불안 커지고 있기에, 해외 입국 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마약 복용자를 조기 차단하고 내국인은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 불허 및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함.</li> </ul> <p>나.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li> <li>○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 확산과 청소년 접근 용이성, 특히 마약 투약 상태의 해외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임.</li> <li>○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li> </ul>

안건명	내용
	<p>진 중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대한민국 입국 단계에서부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li> <li>○ 이러한 법률 개정은 마약 복용자를 조기에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li> </ul>
<p>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p>	<p>가. 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식품 명칭과 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li> </ul> <p>나.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전반에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는 2024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li> <li>○ 그러나 마약류 및 유사 표현에 대해 표시·광고 금지가 아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온라인 등에서 마약류 관련 표현이 사용·노출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li> <li>○ 이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p>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가. 주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업로드 단계 탐지·차단, 재업로드 방지, 확산 기능에서의 노출 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집행 수단을 마</li> </ul>

안건명	내용
개정 촉구 건의안	<p>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p> <p>나.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등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li> <li>○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li> <li>○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탐지·차단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마약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 Ⅲ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 □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 최근 마약 범죄는 연령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층 내 마약 확산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선 '선제적·예방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마약의 심각성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범시민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함. 아울러 서울특별시

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존 예방교육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큼.

-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 등 여러 부서에 추진되던 마약 예방 관련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였음.

그 결과, 개별 부서의 산발적 추진은 정책 일관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부서 간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서울시 마약 대응 정책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 교육전문위원실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마약 예방교육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임.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언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후속 의정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겠음.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재·개정 및 예산 편성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 2026.4.30.(목)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붙임 1.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보도자료 20부

3. 위원회 제안 의안 3부

-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 업무보고 각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026.4.20. 기준]

구 분	성 명	상임위	선거구	의 원 연구실	이메일
위원장 (국민의힘) <b>퇴직</b> (2026.3.11.)	 <b>이종배</b> '78.03.03.	문화체육관광	비례	833호	jongbae1252@daum.net
부위원장 (국민의힘)	 <b>이호원</b> '88.06.16.	교육	비례	820호	seoul.lhw@gmail.com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b>오금란</b> '65.11.05.	보건복지	노원2	523호	bmwohkr@naver.com
위 원 (국민의힘)	 <b>구미경</b> '73.06.01.	기획경제	성동2	517호	smil-ing@naver.com
	 <b>김경훈</b> '86.12.08.	교육	강서5	606호	kkhbb0331@daum.net
	 <b>김용호</b> '61.01.11.	도시안전건설	용산1	724호	pukasun011@hanmail.net
	 <b>김종길</b> '81.08.21.	주택공간	영등포2	508호	220601winner@naver.com
	 <b>문성호</b> '89.07.02.	교통	서대문2	707호	nayuri89@naver.com
	 <b>이종환</b> '56.12.11.	보건복지	강북1	737호	ljh5612@hanmail.net
	 <b>황유정</b> '61.12.26.	기획경제	비례	611호	lovejane26@hanmail.net
위 원 (더불어민주당)	 <b>김기덕</b> '54.12.26.	문화체육관광	마포4	708호	kkd3344@hanmail.net
	 <b>박유진</b> '74.12.17.	기획경제	은평3	802호	maum7412@naver.com
	 <b>정준호</b> '70.12.25.	교통	은평4	810호	lehgoa@gmail.com

2025. 6. 11.(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02-2180-8496~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 4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종배 의원 선임
- 이종배 위원장, “적극적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에는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구성안이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화)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하여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문성호(국민의힘, 서대문2), 이종환(국민의힘, 강북1),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3),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의원 등 마약 범죄 확산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서울시의원 13인으로 구성되었다.

	<p><b>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b></p> <p><b>이종배 (국민의힘, 비례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li> <li>▶ 現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li> <li>▶ 現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li> <li>▶ 現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li> </ul>
	<p>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p> <p>E-mail : jongbae1252@daum.net</p>

-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부.  
 2. 위원회 회의 사진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연번	의원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1	이종배	비례	문화체육관광	국민의힘
2	이호원	비례	교육	국민의힘
3	오금란	노원 2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4	구미경	성동 2	기획경제	국민의힘
5	김경훈	강서 5	교육	국민의힘
6	김용호	용산 1	도시안전건설	국민의힘
7	김종길	영등포 2	주택공간	국민의힘
8	문성호	서대문 2	교통	국민의힘
9	이종환	강북 1	보건복지	국민의힘
10	황유정	비례	기획경제	국민의힘
11	김기덕	마포 4	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
12	박유진	은평 3	기획경제	더불어민주당
13	정준호	은평 4	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2025. 6. 11.(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연강속으로  
시민결의로

이효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시의원	이효원	010-5125-4432
의원연구실	820호	02-2180-8796
정책지원관	이지희	02-2180-5888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 이효원 서울시의원, 마약 근절에 힘 보탠다

###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2년 연속 마약 특위 참여…교육위 위원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심 높아  
-이 의원 “마약은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시의회 가시적 역할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단속 및 처벌 위주의 마약 퇴치를 넘어 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에 이효원 의원이 실질적인 엔진 동력이 될 전망이다.
- 해당 특위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종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들과 함께 약 6개월간 본 특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사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자료를 통해 현황을 깊이 파악해 왔고 교육청의 조치 내역을 검토하며 실질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
  
-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했고,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에 높이 기여했다는 평이다.
  
- 이효원 의원은 “작년에 마약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특위를 통해 당시 교훈으로 남았던 의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교육위에서 마주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와 더불어 올해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일종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당 훌륭한 특위 위원들을 필두로 마약 근절에 서울시의회가 가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효원 의원 사진 ]



[ 이효원 의원 프로필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공보부대표(현)
-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
- ▶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전)
- ▶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전)
- ▶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전)

· Tel : 02-2180-8796~7      · Fax : 02-2180-8800  
· E-mail : seoul.lhw@smc.seoul.kr      · Mobile. : 010-5125-4432

2025. 6. 24.(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연강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이종배 마약예방특위 위원장,

### “전쟁하듯 마약예방교육 해야” 마약퇴치 행사서 호소

- 이 위원장, 서울시 주최 ‘마약퇴치: 미래를 위한 약속’ 행사 참석해 축사
-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모든 역량 쏟아 부어야”

-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3일(월) 서울시가 주최한 청소년·청년 마약퇴치 행사, 「마약퇴치: 미래를 위한 약속」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년층 대상 마약 예방교육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 이날 행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주요 대학, 민간 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 마약퇴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끔찍한 마약 좀비 사회가 될 수 있다”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 이 위원장은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국의 비싼 마약 가격으로 인해 전 세계 마약상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처음부터 손대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럽 일부 국가들도 마약 확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예방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다”며, “한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하듯이 마약과의 싸움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끝으로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의 협력체계 구축이 청(소)년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경찰, 대학, 민간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학생과 청년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해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규정을 제정하고 마약 예방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활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8. 12.(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 이종배 위원장, “입국장 마약 검사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 못 타게 할 것” 개정안 건의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입국자 마약검사 시행 도입을 강조했다.
-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예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08.2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02-2180-8496~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2매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청소년 등 전연령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대책 필요”

- 마약은 특정 계층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위협... 전연령 맞춤형 교육 필요
- 이종배 위원장, “마약 예방교육은 단순한 흥미 유도가 아니라 경각심 심어야”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 이날 회의는 ▲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김경훈 위원은 교원·학생 건강검진에 마약 간이검사를 도입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종길 위원은 60대 이상 노년층 마약사범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예방·재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미경 위원은 교육자료에서 마약을 흡연·음주와 동일 선상에 두면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 이날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위협으로, 특히 청소년까지 확산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전문강사 부족 등 보완 과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이 단순한 관심·흥미 유도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예방교육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마약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mailto: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8. 2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4)**

**교통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 의 원	정준호	010-2242-9494
의원연구실	810호	02-2180-8871~2

### **세관 뚫고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정준호 서울시의원, 광범위한 마약 확산 우려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마약 공급·유통 원천 차단 필요성 강조.

-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수) 개최된 제 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10호

Tel : 02) 2180-8871~2      Fax : 02) 2180-8875

E-mail : lehgoa@gmail.com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前 국회의원 비서관

2025.08.29.(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 이종배 위원장,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로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오는 9월 8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8. 29.(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로

### 구미경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2매

의원연구실 (517호)	TEL	02)2180-8401/2
	FAX	02)2180-8405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 간담회에서 마약 예방교육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 구미경 의원, "예방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수)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끝>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구미경 시의원 (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부위원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Tel : 02)2180-8401~2 Fax : 02)2180-8405 E-mail : smil-ing@naver.com

## 붙임자료1

## 현장사진



<구미경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9. 8.(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결로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02-2180-8496~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6매

##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 9월 8일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4월말 구성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종배)가 주최
- 법조계, 의료계, 학계, 경찰, 공무원, 보건교사 등 각계 전문가 참여
- 예방단계 수사기관 참여 강화, 캠페인 활성화 등 조례개정 방향 제시
-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과 참여형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시행
- 이종배 위원장, “위기 극복 위해 전쟁 치루듯 철저한 예방교육 필요”, “토론회 계기로 다양한 의견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종배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의료전문가, 경찰관계자, 학계전문가, 학교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 본격적인 토론회 전 구미경 의원(국민의 힘, 성동2)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효원·오금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마약 퇴치에 관심 있는 서울시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 시간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마약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지언, 곽수현 2명의 법률 전문가가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 강진용 과장은 그간 서울시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속, 캠페인, 예방교육,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조기개입모델 도입, 청년 예방사업 확대, 마약관리센터 개소 등의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 이지언 변호사는 마약퇴치라는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방교육의 첫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 마약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의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곽수현 변호사는 마약예방 캠페인과 관련한 조례 내용 강화,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마약 단속 강화,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병과조치 대상자 확대 및 전자발찌 부착 검토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이 조기발견과 재활의 중요성을, 학계 대표로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교수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토론자 모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 또한, 경찰 대표로 참석한 길우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앞선 3가지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경찰·서울시·교육청·의료기관·시민단체의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현장 대표하여 참석한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와 우수 교육사례 확산 지원 등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지금의 마약범죄 확산은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전쟁처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배 위원장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약퇴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과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법제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 특별위원회활동 기간 중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평소 마약확산 근절과 예방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은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행사 사진**

	<p><b>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b>  <b>이종배 (국민의힘, 비례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li> <li>▶ 現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li> <li>▶ 現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li> <li>▶ 現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li> </ul>
	<p>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p>





2025. 9. 9.(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 구미경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의원연구실 (517호)	TEL	02)2180-8401/2
	FAX	02)2180-8405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 구미경 의원 식전행사 사회 진행.. 마약퇴치 대응 전략과 지역사회 역할 모색
- 구미경 의원 "마약퇴치는 사회 전체의 과제.. 교육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8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용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곽수현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역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구미경 시의원 (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부위원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Tel : 02)2180-8401~2 Fax : 02)2180-8405 E-mail : smil-ing@naver.com



<구미경의원(베이지정장)이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구미경의원(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베이지정장)이 토론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9. 22.(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이종배 위원장, “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 이종배 위원장, “마약사범에 전자발찌 부착해, 면밀한 관리 통해 재범률 낮추는 조치 필요”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 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라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b>서울특별시의회</b> <small>Seoul Metropolitan Council</small>	 <b>국민의힘</b>
	<b>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b> <b>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b> <b>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b> <b>E-mail : jongbae1252@daum.ne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li> <li>-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li> <li>-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li> <li>-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li> </ul>		

[붙임 사진]



2025. 11. 7.(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 이종배 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서울시가 홍보 통해 경각심 높여야”

-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예방 캠페인 독려
- 이 의원, “마약 예방교육, ‘재미’ 아닌 ‘경각심’ 중심으로 ... 홍보기획관 적극 대응 필요”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는 마약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마약 투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시민건강국과 협의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대상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와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마약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11. 11.(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마약예방특위,

###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 서울 중고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
- 마약 호기심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 21.1% 가장 높아
- 이종배 위원장,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 앞장서겠다”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묻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 마약에 대한 호기심의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21.1%)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연예인·유명인 사건(20.2%), 영화·드라마·음악 등 콘텐츠(11.6%)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노출 차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 마약 예방 교육의 경우 여러 번 받았다(73.4%)가 다수였으나, 학교별 편차가 존재했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라 지루했다(40.6%)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식은 실제 피해자 사례 공유(33.6%), 정기적 교육(28.9%), 전문가 강연(17.0%) 순이었다.
- 이종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마약을 단순한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을 갖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라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방치한다면 우리 청소년 세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은 이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영상, 체험형 프로그램, 경찰·의사 등 전문가 강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라며,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mailto: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11. 26.(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면 재정비해야”

-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포르투갈은 청소년 대상 ‘융단 폭격식 교육’으로 마약 사용 줄여… 한국도 골든타임 놓치면 늦는다”
- “중고생 40% ‘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34% 마약을 단순 ‘건강 해로운 물질’로 인식… 교육청이 전쟁하듯 나서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수차례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부처·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 예방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 수사 예산과 특수활동비 축소, 일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을 언급하며 “마약 확산의 책임에서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과 특활비를 대폭 줄인 결정은 마약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파를 떠나 마약 대응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마약 중독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학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마약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나 전쟁하듯 예방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b>서울특별시의회</b> Seoul Metropolitan Council	 <b>국민의힘</b>
	<b>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b> <b>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b> <b>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b> <b>E-mail : jongbae1252@daum.net</b>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 (현)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5. 12. 17.(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이종배 시의원, “마약예방교육,

##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
- “마약 접촉 경로 데이터 없이 정책 없다... 경찰 수사자료 기반 통계 구축 필요”
- “구호식 교육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후유증극심한 부작용 알려주는 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속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꿈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 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 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서울특별시의회</b> <small>Seoul Metropolitan Council</small>	 <b>국민의힘</b>
	<b>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b> <b>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b> <b>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b> <b>E-mail : jongbae1252@daum.ne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li> <li>-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li> <li>-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li> <li>-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li> </ul>		

[붙임 사진]



2025. 12. 17.(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4)**

**교통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3매

시 의 원	정준호	010-2242-9494
의원연구실	810호	02-2180-8871~2

### **정준호 서울시의원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시 민 인식 왜곡 우려에 행정 지원 점검·명칭 개선 적극 추진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10호

Tel : 02) 2180-8871~2      Fax : 02) 2180-8875

E-mail : lehgoa@gmail.com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강병원 국회의원 비서관

2025. 12. 1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02-2180-8496~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서울시의회,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실현 위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정책 업무보고 받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특위 위원들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체계 마련할 것” 요구
- 예방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선과 골든타임 고려한 집중 교육 필요성 강조
- 이종배 위원장, “청소년 인식과 행동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교육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12월 16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아울러,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와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족 참여형 예방교육 등 국제적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교육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마약 예방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청소년 참여형·훈련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마약 문제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효원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시간·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1회성 교육이 아닌 연속적 예방교육 체계와 실제 교육 주체에 대한 세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황유정 위원은 마약 예방교육 이후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청소년 대상 재활·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학생 수요를 반영한 솜품 콘텐츠와 참여형 예방교육 활성화를 주문했다.
  - 정준호 위원은 ‘마약김밥’ 등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표현 사용 자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구미경 위원은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세대의 마약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예방교육과 서울시 차원의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예방 교육은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재 개선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mailto: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6. 1. 28.(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4매

##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다…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마약 예방교육 및 홍보 개선방안 보고에서 마약 경각심·피해사례·설문조사 강조
- “설문조사와 통계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다… 인식·접촉 경로 데이터 확보 시급”
- “한 번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실제 피해 사례·후유증 중심 교육 필요”
-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해야… 마약청정국 인식에서 벗어나야”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확대, SNS·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 서울교육청은 기존 교육자료의 한계를 진단하며, 단순 위험성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자료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은 추상적 경고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메스버그 현상의 피해, 마약에 포함된 황산 성분으로 치아가 무너지는 사례, 실제 피해자 증언 등 구체적 사례를 적극 활용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의 마약 인식 수준과 접촉 경로, 예방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실태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학부모 세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오늘날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교육·상담·선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6. 1. 29.(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5매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 이종배 시의원, “서울 청소년 마약류 유입, SNS·텔레그램이 10명 중 8명”

- 청소년 마약류사범 유입경로 분석 결과, SNS 등 온라인 경로 82.7% 압도적
- 친구·또래 집단, 동네 선배, 성인과의 만남 등 오프라인 경로도 여전히 존재
- 이종배 위원장, “온라인 공간이 마약 통로로 전락, 청소년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시급”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다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2026. 2. 19.(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속으로  
시민결연

이종배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종배	010-6707-1252
의원연구실	833호	02-2180-8496~7
	FAX	02-2180-85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5매

## 이종배 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권고 넘어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 서울시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 보고 받아
- 음식점 상호 37개소 중 26개소 변경… 현재 11개소 남아
- “상호뿐 아니라 메뉴명까지 관리해야… 권고 수준 넘어야”
- “마약 예방교육은 ‘재미’ 아닌 경각심 중심… 전국 협의체도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 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는 소관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미비로 차단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사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마약 거래 게시물의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이종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마약류 표현 사용을 보다 강력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위원장은 “상호뿐 아니라 음식점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마약 교육을 재밌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린다”며, “마약 예방 교육은 재미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마약 예방 실천·교육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제각각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과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33호**

**Tel : 02) 2180-8496~7      Fax : 02) 2180-8500**

**E-mail : jongbae1252@daum.net**

-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 위원장
- (현) 국민의힘 부대변인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붙임 사진]



##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28
----------	------

제안일자 : 2025년 8월 27일  
제안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장

### 1. 주 문

- 마약 범죄 확산과 함께 해외여행객이 마약 투약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마저 발생해 국민 불안 커지고 있기에, 해외 입국 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마약 복용자를 조기 차단하고 내국인은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 불허 및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 확산과 청소년 접근 용이성, 특히 마약 투약 상태의 해외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한민국 입국 단계에서부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법률 개정은 마약 복용자를 조기에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출입국관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 송 처

가. 국회, 법무부

#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청소년들마저 마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23년 11월에는 해외 여행객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상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마약 소지 전수 검사 시행을 포함해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막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마약청정도시 서울’,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 방법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사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구체화하고, 마약 우범국가·노선 또는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선별 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입국장 단계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또한 검사와 조치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오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마약 복용자를 신속히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내 유입 경로를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조치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국내외에 알려지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 이미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20일  
발 의 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특별위원장

## 1. 주 문

-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식품 명칭과 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 2. 제안이유

- 사회 전반에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는 2024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마약류 및 유사 표현에 대해 표시·광고 금지가 아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온라인 등에서 마약류 관련 표현이 사용·노출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 송 처

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최초 집계가 시작된 1985년의 1,190명과 비교하면 약 20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마약 문제가 특정 계층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 있는 맛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약을 친숙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게 만들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개정(2024.1.2., 시행 2024.7.3.)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금지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영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서는 여전히 관련 표현이 사용·노출되고 있음에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왜곡된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류를 연상시키는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국회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20일  
발 의 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특별위원장

## 1. 주 문

-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업로드 단계 탐지·차단, 재업로드 방지, 확산 기능에서의 노출 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집행 수단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 2.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등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탐지·차단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마약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 송 처

가.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 제안이나 연락처 게재 등 마약 유통 정보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응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접속 차단 등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게시물 생성과 확산, 계정 재생성 등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정보가 이미 다수 이용자에게 노출된 이후에야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시스템 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로드 단계에서의 자동 탐지 및 차단,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업로드 방지, 반복 계정에 대한 제재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조치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플랫폼의 대응이 자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은 위험평가와 비례적 안전조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사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방식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 거래 알선 정보에 한정하여 선제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게시물 업로드 단계에서의 자동 탐지·자동 차단 또는 보류 심사체계 구축,
-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업로드 차단 및 반복 계정에 대한 제재,
- 검색·추천·자동완성 등 플랫폼의 확산 기능에서 마약 거래 관련 정보의 선제적 노출 차단 의무,
-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정 명령 등 감독 및 집행 수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 관련 불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마약 거래 알선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 위원회

SE♥UL M! SOUL

# 주요 업무보고

2025. 8.

시 민 건 강 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평 생 교 육 국  
서 울 시 교 육 청  
( 평 생 진 로 교 육 국 )

**시 민 건 강 국**

#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보건의료정책과장 : 강진용 ☎2133-7505 마약대응팀장 : 유희정 ☎7530 담당 : 박아영 ☎7518  
 마약재활팀장 : 서명신 ☎7517 담당 : 이은결 ☎9313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 예방교육, 홍보 및 점검, 치료·재활 연계를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관리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 마약류 문제 현황

### ○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 급속히 증가

- 서울시 마약류 사범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4년 5,623명(전국 2만3천명, 전국2위)으로, 압수율\*(28.57배) 적용 시 약 16만 명으로 추정('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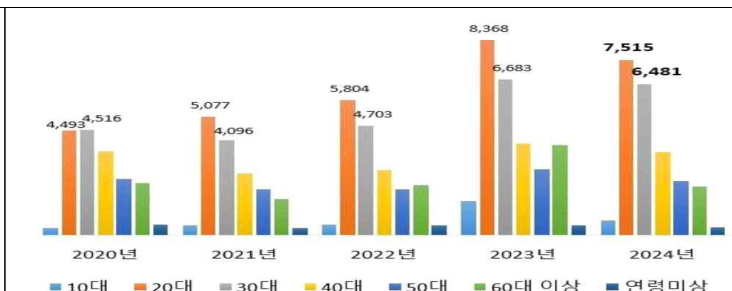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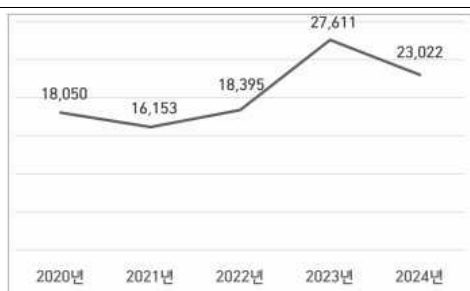
\* 압수율 : 범죄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검거되지 않는 인원의 비율(출처:한국경찰연구, 2019)

#### 【서울시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전국 대비 서울시 비중】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검거 현황	서울시	4,015	4,044	4,640	6,271	5,623
	전국	18,050	16,153	18,395	27,611	23,022
마약류 사범 중 서울시 비율(%)		22.2	25.0	25.2	22.7	24.4

- 마약류 사범이 10~20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

\* '05년 7,154명(814명) → '20년 18,050명(4,806명) → '24년 23,022명(8,164명) / ( )는 10~20대



### ○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시민 예방교육 필요

- 호기심, 타인의 권유 등 마약류 접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 공급은 증가하였으나, 콘텐츠·전문강사 확보 등 질적 성장 필요\*

\* 학교 교사 및 예방교육 강사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24.6.7~24, 식약처)

- 차별화된 콘텐츠 및 홍보 방식을 통한 마약류 인식 제고 대시민 홍보 필요

## □ 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 사업대상 : 서울시민(범죄율 등을 고려하여 특히 10~20대 집중)

### ○ 주요내용 :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홍보, 감시·단속, 치료·재활 사업

#### 교육 · 홍보

- (청소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청년) 대학생 등 청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상담 인력 교육
- (홍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 치료 독려 등 대시민 홍보

#### 감시 · 단속

- (CCTV 관제) 24시간 마약류 유입 모니터링
- (온라인 감시) 각종 SNS·포털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감시
- (의료기관 점검) 의료용 마약류 적정 관리 및 법령 위반 점검
- (유흥시설 단속) 경찰 협업 유흥 시설 단속 및 홍보 강화
- (마약류 상품명 개선) 마약 관련 용어 식품 표시·광고 개선 지원

#### 치료 · 재활

- (마약관리센터) 시설 준공,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 (치료비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동행의원 활성화) 지역사회 내 중독치료 외래진료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
- (민간기관 운영)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민간기관 지원

### ○ 예산현황 : 1,606백만원 (국비 235, 시비 1,371)

※ 치료보호비 470(국시비 5:5), 민간재활기관 지원 300(시비), 동행의원 등 230(시비), 예방홍보 606(시비)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7월말 교부액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1,000,000	449,174	44.9%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606,250	190,250	31.4%

## □ 추진 현황

### ①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 ○ (청소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강사 양성 교육 실시 : '24년(30명) ⇒ '25년(50명)
- ※ '24년 1,463회 267,059명 '25년 1,332회 103,263명
- 학부모 대상 '마약 없는 미래, 부모가 만드는 안전 지대' 교육('25년 3월) : 1회 900명

#### ○ (청년) 대학생 등 청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상담 인력 교육

- 사회복지부 요원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드라마 형식 예방 영상 제공(병무청 등)
- 市-대학교 협력 다각적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 실시



- 「음주·흡연·약물 사용 선별 및 단기 개입(SBIRT-ASSIST)검사지」 국내 활용 자료 개발(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상담인력 전문 교육 실시(1회, 44명)

#### ○ (시민 홍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 치료 독려 등 대시민 홍보

- '플레이브(버추얼 가수)' 마약류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옥외전광판, 유튜브, SNS등)로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 소통 '마약에 만약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
- '마약류 중독, 일상으로의 회복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배너 광고(지하철 등)



예방 교육



캠페인



플레이브 영상



배너 광고

## ② 市 마약관리센터 조성 및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 **(마약관리센터) 시설 준공,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은평병원 3층 1,901㎡)
  - 병동부와 외래부로 구분, 환자 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한 시설 준공(~'25.7.19.)
    - ▶ (병동부) 남여 구분한 폐쇄병동 운영, 병동 옆 집중치료실 등 인접 배치하여 안전 및 동선 효율화 확보
    - ▶ (외래부) 진료실, 상담실 등 배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주간 치료재활 추진



입원실



병동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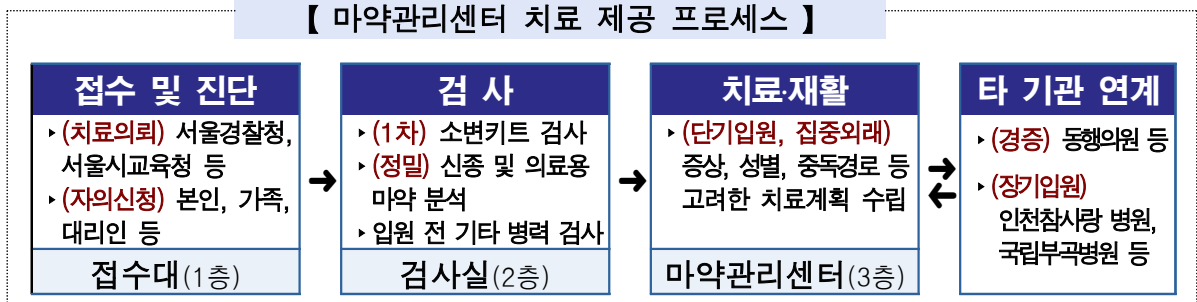
진료실



외래 대기공간

- '25. 9월 개소식 전까지 시범운영, 환자 추이분석 등을 통해 운영시스템 집중개선
- ※ 이용실적('25.7.1.~7.31.) : 외래진료(260명), 외래프로그램(53명), 입원치료(9명) 제공

### 【 마약관리센터 치료 제공 프로세스 】



- **(치료비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25.7월말 총 228건, 185백만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7회), 치료비 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
- **(동행의원 활성화) 지역사회 내 중독치료 외래진료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
  -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 위해 지역 내 동행의원 확대하여 진료 접근성 제고
    - ※ '23년 12개구, 21개소 → '24년 12개구, 24개소 → '25년 19개구, 34개소
  - 동행의원 역량강화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 (사)중독포럼 주관, 동행의원 진료지침 교육·의료기관간 관계망 형성·정보제공 등 실시
- **(민간기관 운영)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민간기관 지원**
  - 상담, 자조모임, 교육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당사자 및 가족 총 86명 참여 중)
    - ※ 수행기관(3개소) : (사)희망의 집, (사)한국바른마음바른문화운동본부, 따뜻한삼촌사회적협동조합

### ③ 시민 일상 마약 유입 차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 (CCTV 관제) 24시간 마약 유입 모니터링

감시역량 강화 지원	24시간 실시간 CCTV감시	마약 유통 의심 징후 대응
마약 관련 주택가, 도로 등 감시요령 교육 및 지원	주택가, 도로 등 마약 관련 '이상행위자' 실시간 감시	마약 유통 의심 징후 발견 시 관할 경찰서 상황 전파 및 영상공유
(서울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 CCTV 관제요원 대상 마약류 범죄 동향·대응 및 단속 기법 교육 실시(연 4회)
- 마약 범죄 대응에 기여한 CCTV 관제요원 대상 표창 수여
- '25년 실적 : 영상협조 64건 검거 10건

#### ○ (온라인 감시) 각종 SNS·포털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감시

- 온라인 마약류 판매(마약류 관련 은어, 약어 등 인터넷 판매 검색) 점검 및 차단 요청  
[매체] SNS(트위터, 텀블러, 핀터레스트, 인스타 등)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점검대상]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판매 사이트
- '25년 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매체에 차단요청 2,879건

#### ○ (의료기관 점검) 의료용 마약류 적정 관리 및 법령 위반 점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현장 점검
- '25년 실적 : 333개소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9개소 적발  
※ 프로포폴 취급업소 전수 점검('24.10.~'25.1.) 총 991개소 점검, 위반업소 104개소

#### ○ (유흥업소 단속) 경찰 협업 유흥업소 단속 및 홍보 강화

- 市·경찰청 기획단속, 자치구 교차단속, 시·경 마약 특별 단속 실시
- 유흥업소 마약류 예방 홍보 : 7,280개소(포스터 7,000매 / 홍보물 10,000개 배포)
- 유흥중앙회 등 간담회(2.11.) 및 위생점검 시 마약류 예방·홍보 병행
- '25년 실적 : 5,390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9개소 적발

#### ○ (마약류 상품명 개선) 마약 관련 용어 식품 표시·광고 개선 지원

- 마약류 상품명 사용 조사(공공의료추진단 연구과제) : 전국 165건(서울시 19건)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2025.5.19.)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사용 근거 마련

#### ④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기관 협력

- **(협약 추진)** 서울시-市경찰청-市교육청-주요대학-민간기관 협약
  - 서울시 주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 기념행사 시 협약식 개최('25.6.23.)
  - 「마약퇴치:미래를 위한 약속」 청(소)년 마약 퇴치 협약 추진(총 26개 기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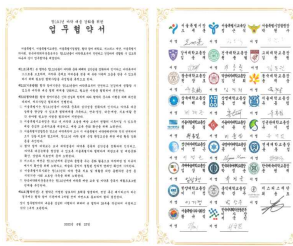
#### 협약 기관 및 역할

- (서울시) 마약류 예방 캠페인, 단속·점검, 마약관리센터 운영 등 중독자 치료 및 재활
- (市교육청) 청소년(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 문화 확산 및 예방 교육 활성화
- (市경찰청) 마약류 수사 단계에서 청(소)년 상담·치료 연계, 학교 전담 경찰관(SPO) 활동
- (20개 대학)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예방 문화 확산 및 대응체계 구축, 상담·치료 등 연계
- (저스피스재단) 마약류 예방 문화 홍보 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식 개선
- (市의사회) 지역기반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연계 추진

- **(협력 사업)**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마약 투약자 조기 개입을 통한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및 홍보
  - 대학가 ‘마약 던지기’ 실태 점검 및 사후 관리
  -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강화 등 법령 개정 건의(ADHD 치료제 등 확대 예정)



업무협약 (26개 기관)



축사 및 다짐

#### □ 향후계획

- 대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연중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소식 개최 : '25. 9월
- 청(소)년 시설 및 대학 상담센터 종사자 교육(4회) : '25. 9~10월
- 하반기 통합관제센터 요원 대상 집합 교육 진행(2회) : '25. 11월

# 자치경찰위원회

#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및 대응활동 내실화

자치경찰협력과장 : 길우근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정승화 ☎9837 담당 : 최현희 ☎9839

청소년 마약류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교육하여 마약류범죄 예방

※ '23년(158건), '24년(58건), '25년 상반기(39건)/'24년 상반기(33건)

## □ 추진방향

- 청소년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적 예방활동 등 적극 대응
- 유관기관 협업,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 추진내용

### ① 체계적·전문적 마약류범죄 예방활동 전개

- (교육자료) 마약교육 전문기관과 협업,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류범죄 예방교육자료 제작 ('24.12월)  
\* 경찰(SPO),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교육청, 초·중·고 보건교사 등



- (집중 교육)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 취약한 학교·학생 상대로 집중 예방교육 실시  
\* '25. 6월 현재 1,050회, 251,540명 교육 실시('24. 6월 977회, 204,710명 교육)
- (선도프로그램) 의료기관(신경정신과 전문의)에서 운영하는 중증 마약중독 청소년 진단·치료 및 '선도프로그램' 적극 연계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협업, 중독성 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개발('24.12월)
- (사후관리) 전문기관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청소년을 '면담관리대상'으로 지정, 사후 모니터링 실시

### ② 청소년 마약류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업무협약) 청소년 마약류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25.6.23.) \* 서울시·서울경찰청·교육청·주요대학(20)·의사회·저스피스재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협약 주요내용

- ▶ (서울청) SPO 청소년 마약류범죄 적극 예방,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와 연계
- ▶ (서울시)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 중독자 치료(마약관리센터), 재활 지원 및 관리
- ▶ (교육청)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 (주요대학) 캠퍼스 내 마약 예방을 위해 도래 리더 양성 및 대응체계 구축
- ▶ (저스피스 재단)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 활용, 마약 예방 홍보

- (실무 회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최, 실무회의 반기별(필요시 수시) 개최
  - \*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③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홍보 적극 추진

- (공동 홍보) 유관기관 홍보예산(약 7,300만원) 공동 사용, 홍보효과 제고
  - \*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생활밀착 홍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선정, 홍보영상·포스터 등 활용 홍보

구분	지하철 스크린도어	지하철 열차내	아파트 E/V 모니터
내용			
일시	'24. 11. 18.~'25. 1. 17. (2개월간)		
장소	홍대입구·건대입구· 잠실·역삼·서울역	열차내 모니터	KT설치 모니터
수량	5개소	2호선 전체	19,000 개소
형식	포스터 (간판)	홍보영상 (20초,가로형)	홍보영상 (20초,세로형)

### □ 향후계획

- 하반기 초·중·고생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교육 : '25. 9월
-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지속 : '25. 9~12월

평생교육국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청소년정책과장 : 주호돈 ☎2133-4110 청소년정책팀장 : 임진영 ☎4112 담당 : 최현수 ☎4113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 차단,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청소년 주요 행사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 및 홍보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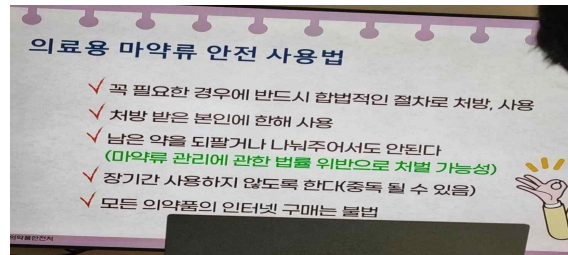
- 청소년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약 오·남용 예방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 이하 마퇴본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계, 찾아가는 마약예방 캠페인 추진
- 서울시 청소년축제, 쉼터 연합 아웃리치 등 주요 행사 개최 시 **홍보부스 운영**

## □ 추진현황 ('25. 8월말 기준)

- 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쉼터4, 총135명 참여, '25.4.~7.)
  - (온 라 인) 금천단기쉼터 1개소 6명(마퇴본부 홈페이지, 표준 교육과정)
    - ※ 하반기 쉼터(19개소)·학교밖지원센터(26개소) 등 45개소 마약예방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예정
  - (오프라인) 청소년쉼터 4개소 129명(찾아가는 마약예방교육)
    - ▶ 참여 쉼터 : 강서단기, 강서중장기, 신림단기, 금천단기



【 시립강서단기쉼터 대면 교육 】



【 마약예방교육 교육자료 】

※ '24년 마약예방교육 : 청소년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등 총135명 이수

- 마약 예방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시립은평중장기쉼터(여) - 마퇴본부)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 조기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5.6.17.)

- ✓ 협약기관 : 시립은평중장기쉼터(여) - 마퇴본부 서울지부
- ✓ 협약목적 : 마약류 문제 있는 청소년 조기발굴 및 사회복귀 지원
- ✓ 주요내용 : 약물오남용 설문조사(9월) 및 조기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별교육 실시 예정



- 서울시 청소년축제(청소년 페스티벌·성년의 날 등) 개최 시 마퇴본부와 협력, 마약예방 홍보부스 운영

- 성년의 날('25. 5.18.) : 마약예방 리플릿(약 3,000개) 등 배포

- ※ '24년 실적(10.26., 어린이대공원) : 마약예방 홍보부스 설치 및 리플릿(약 5,000개) 등 배포



【 성년의 날 】



【 청소년 페스티벌 】



- 쉽터 연합 아웃리치 활동 시 마약예방 리플릿 배포 등 활동 병행

- 쉽터 연합 아웃리치('25. 6.13., 신림일대) : 마약예방 리플릿(약 1,500개) 배포

- ▶ 하반기 수능 이후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마약예방 홍보 활동 추진

- ※ '24년 실적(11.15., 홍대 일대) : 마약예방 리플릿(약 20,000개) 배포



【 연합 아웃리치(신림) 】



【 연합 아웃리치(홍대)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49개 시민단체) 마약예방 캠페인 추진 ('25.1.~8.)

-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점검·단속 시 캠페인(총 326회)

- ※ '24년 실적 :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점검·단속 시 캠페인(76회) 및 홍보물(3,750건) 배포

- 청소년몽땅 포털 마약예방 홍보포스터 게재 ('24.10.~12.)



## □ 향후계획

- 청소년쉽터 입소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실시 : '25. 10월~12월
  - 청소년쉽터 19개소(일시4, 이동4, 단기5, 중장기4, 자립지원관2), 학교밖지원센터 26개소
- 약물오남용 설문조사 실시(시립은평중장기쉽터·마퇴본부) : '25. 9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마약예방 캠페인 추진 : '25. 9월~12월
- 「서울 청소년축제」 시 마약예방 추진(청소년몽땅 포털 게재 병행) : '25. 10월~12월
- 쉽터 연합 아웃리치 마약예방 홍보 추진(청소년 밀집지역 등) : '25. 11월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서울시교육청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추진 현황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 강순원 ☎399-9599

학교보건팀장 : 전영희 ☎9576

담당 : 최경수 ☎9662

담당 : 나현수 ☎9680

## 1 마약퇴치 예방교육 실태

### □ 사업 개요

#### ○ 목적

- 불법 마약 및 유해 약물의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고 올바른 건강 선택 역량 강화
-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함양 및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교육부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 지침,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 ○ 주요 내용

- (학교)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
- (학생)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하여 학생 교육 지원, <초6, 중3, 고3> 학생 대상 전환기 교육 및 학교급별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직원, 학부모) 서울시, 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직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 (유관기관) 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업무 협력

## □ 마약류 예방 교육 현황

○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근거 및 시간

- 교육은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 교과, 관련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실시

###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시간>

구 분	연간 교육 시간(연간)			비고
	초	중	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6	7	약물 오남용 교육 포함
학교보건법 (교육부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지침)	17			1개 학년 보건교육 시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10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포함

○ (최근 3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현황

구 분	전체 학교수	마약류 등 예방 교육 운영 학교수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1,314	1,314(100%)	604	389	321
2024년	1,310	1,310(100%)	605	387	318
2025년	1,311	1,311	2025.12월 교육 현황 수합 예정		

※ 모든 학교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완료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학교급별 예방교육 운영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25. 연중	초·중·고 전체 학교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약사·퇴직교원·변호사 등)	'25. 연중	1,500학급
AI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초6)	'25. 7.~10.	200학급
메타버스 예방 교육 지원(중3)	'25. 11.~12.	100학급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 지원(고3)	'25. 11.~12.	2회
마약류 담당교원 연수(상·하반기)	'25. 2./10.	2회
온라인 학부모 연수(오은영 박사 특강)	'25. 3.	1회(약 900명)
가정 연계 가정통신문 발송(교육청 일괄)	'25. 연중	2회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운영	'25. 연중	4교(초 2교, 고 2교)

□ 추진 현황 및 실적

○ 업무협약(2023년, 2025년 2차례 추진)

- [1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 체결(2023.6.19.)

[협약 내용]

- ▶ 협약목적: 마약류 범죄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학교 내 마약류 예방 교육 총괄 추진, 교직원·학부모·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교육홍보, 마약검사 및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단속점검 등 전 단계 사업추진
  - (서울경찰청) 마약류 단속점검, 청소년 등 마약사범 연계,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 지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2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의사회-저스피스재단-서울주요대학(20개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25. 6. 23.)

## [협약 내용]

▶ **협약목적:** 청(소)년 마약류 예방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마약류 대응 협력체계구축, 단속점검, 대응예방, 치료재활
- (서울경찰청) 청소년 마약투약자 서울특별시 마약관리센터연계
- (서울시의사회) 청소년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역기반 구축
- (저스피스 재단) 청소년 마약 예방 문화활동을 통한 캠페인 확산
- (주요대학 20교) 대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연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전문 강사 활용 학생 교육 지원**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중(중·고등학교 1,500학급)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와 협업하여 학교 교육 지원 중(총 2,000학급)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급별 교육자료 보급(식약처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자료 10종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 교원용 지도서 보급(교육부 제작)
- AI활용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중(200학급)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4교 운영 중

건강증진학교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

※ 운영 주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초 2교, 고 2교 운영 중)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강화**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2025. 2.)
-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개발·보급(총 2종)
- 학부모 대상 온라인 연수 운영(2025. 3. 25.(화)/ 오은영 박사)
- 학부모 대상 가정연계 가정통신문 안내(2025. 6월, 8월)
- 관리자 대상 연수(교장, 교감 자격 연수 시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 중3 대상 전환기 교육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25. 11.~12.
  - 고3 수능 이후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25. 11.~12.
  - 학교급별 교육자료 안내 및 활용법 연수 예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8. 1.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강사 운영, 교육자료 개발, 연수 운영 등)	281,820	157,000	438,820	307,790	230,658 (75)	182,158 (59)	위탁용역 비용 미지출
합계	281,820	157,000	438,820	307,790	230,658	182,158	

## 2 마약퇴치 예방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 □ 사업 개요

#### ○ 목적

- 서울특별시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

####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 주요 내용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제6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표준안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제10조)
-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항)
-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정  
(2024.1.11. 제90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2024.5.23. 제9207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4. 5. 23.] [서울특별시조례 제9207호, 2024. 5.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 02-399-96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
4.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적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제8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제10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9089호,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마약사범(중독자) 재활 실태

---

### 교육청 현황

-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실태는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으며 경찰청에 공유 가능한 사항(청소년 마약사범 인원)만 제공됨
- (전국)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2025. 6월 기준 267명(대검찰청)
  - ※ 2024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649명

## 4 마약퇴치 홍보(캠페인 등) 현황

### □ 사업 개요

#### ○ 목적

- 청소년·지역사회의 마약 문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약 퇴치 환경 조성

#### ○ 근거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유관기관 업무협약(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 주요 내용

-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업무협약(1, 2차)
- 지하철 전광판·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유튜브 홍보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운영
- 교육박람회·걷기대회 등 학생 참여 행사 부스 운영

###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	'25. 5.~6.	학생 479명 참여
마약퇴치 걷기대회	'25. 11.	학생 및 시민 2,000명 이상
지하철 전광판 홍보	'25. 5.~6.	2호선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홍보	'25. 5.~6.	서울 스마트보드 활용 아파트 전체
서울가족 북웨이브 행사 부스	'25. 6.	학생, 학부모 550명 참여
진로교육박람회 부스	'25. 7.	학생 314명 참여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탑재	'25. 연중	총 6종 제작·탑재

□ 추진 현황 및 실적

- 홍보 및 캠페인
  - 서울가족 북웨이브(2025. 6. 14) 행사에 마약·흡연 예방 부스 운영: 550명 참여
  - 지하철(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드 홍보(2025. 5.~6.)
  - 진로교육박람회 ‘마약 예방’ 부스 운영(2025. 7. 16.~7. 19.): 314명 참여
  - 마약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등 활용하여 홍보
- 공모전(보건안전진흥원 주관)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실시(2025. 5.~6.)
  - 초중고 학생 479명이 참여하여 우수 작품 선정 및 시상(최우수 3, 우수 6, 장려 9)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확대
  - 업무협약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 추진 예정(마약퇴치 걷기대회 등)
  - 마약류 예방 공모전 작품 활용하여 홍보 예정
  -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주기적 발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8. 1.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마약류예방캠페인및문 화조성	65,330	0	65,330	30,330	29,630 (98)	29,630 (98)	
합계	65,330	0	65,330	30,330	29,630	29,630	

# 주요 업무보고

2025. 12. 16.

시 민 건 강 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평 생 교 육 국  
민 생 사 법 경 찰 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목 차

1.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시민건강국)

2.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내실화 (자치경찰위)

3.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평생교육국)

4.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신속 대응 'SNS 핫라인' 운영 (민생사법경찰국)

5.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추진 현황 (서울시교육청)

**시 민 건 강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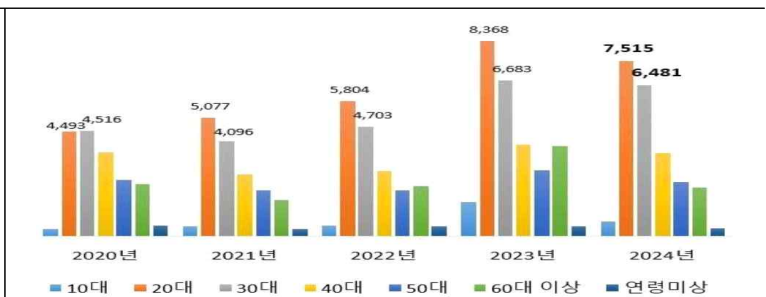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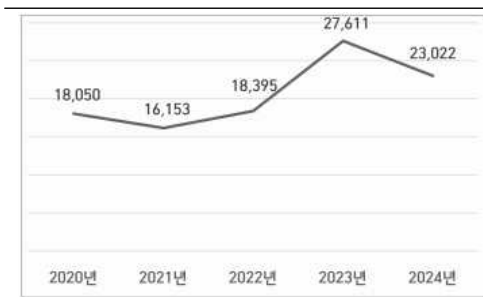
#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보건의료정책과장 : 강진용 ☎2133-7505 마약대응팀장 : 유희정 ☎7530 담당 : 박아영 ☎7518

일상 곳곳에 침투한 마약류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홍보, 단속·점검, 치료·재활 등 시민 체감도 높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 □ 마약류 문제 현황

- 전국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청년층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8% 점유(20대 32.6%, 30대 28.2%)
  - SNS, 다크넷, 인터넷 검색 등 비대면 의사소통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의 마약류 사용·유통 진입 확대



- 서울시 마약류 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5,623명(전국 2만 3천명, 시·도 중 2위)으로, 암수율\*(28.57배) 적용 시 약 16만 명 추정

\* 암수율 : 범죄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검거되지 않는 인원의 배율(출처:한국경찰연구, 2019)

###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9월기준)
전국	16,153	18,395	27,611	23,022	17,726
서울시	4,044	4,640	6,271	5,623	4,393
마약류 사범 중 서울시 비율(%)	25.0	25.2	22.7	24.4	24.8

시민 일상 및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류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 ✓ 마약류 유입·접촉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 기반 강화**
-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 수법을 반영한 **단속·점검**
- ✓ 마약류 노출 이후 **치료·재활 및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 마약류 관리 대책 개요

### ○ 추진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 사업대상 : 서울시민(범죄율 등을 고려하여 특히 10~20대 집중)

### ○ 주요내용 :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홍보, 단속·점검, 치료·재활 사업

#### 예 · 홍 · 보

- 대학교와 협력하여 예방 활동 및 대응 인프라 구축
- 대학교 상담센터 직원 마약류 대응역량 강화 교육
- 캠퍼스 축제 연계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 치료 독려 등 대시민 홍보

#### 단 · 속 · 점 · 검

- 마약류 던지기 단속 및 불법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 CCTV 통합관제센터 감시 영역 확대를 통한 마약류 유통체계 차단

#### 치 · 료 · 재 · 활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 동행의원(중독치료 의료기관) 운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 마약류중독자 재활프로그램 민간기관 지원

### ○ 예산현황 : 1,694백만원 (국비 323.5, 시비 1,370.5)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11월 말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1,694,750	1,424,590	84.1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517,750	442,139	85.3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1,177,000	982,451	83.5

## □ 추진 현황

### 예방홍보 위험군 맞춤형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홍보

- 대학교와 협력하여 예방 활동 및 대응 인프라 구축
  - 추진 기간 : '25. 6월 ~ 11월
  - 추진 내용 : 대학 내 예방교육 활동기반 마련 및 또래리더 양성을 통한 문화확산
  - 추진 결과 : 대상맞춤형 교육 8회, 교육콘텐츠 제공 7편, 비교과목 편성 19개교 (전국 45개교), 대학생 또래리더 '드러그키퍼' 시범사업 실시
- 대학교 상담센터 직원 마약류 대응역량 강화 교육
  - 추진 기간 : '25. 6월 ~ 11월
  - 추진 내용 : 전문가 활용 마약류 오남용 피해, 사용자 조기 선별 상담 기법 등 교육
  - 추진 결과 : 총 6회, 약 120명
- 캠퍼스 축제 연계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 추진 기간 : '25. 5월 ~ 9월
  - 추진 내용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패키지(콘텐츠 및 물품) 제작·배부
  - 추진 결과 : 19개교 대상 캠페인 20회 실시
- 플레이브(버추얼 아이돌)와 함께하는 '마약에 만약은 없어요' 영상 배포
  - 추진 기간 : '25. 8월 ~ 9월
  - 추진 내용 : 120여개 옥외전광판, SNS 및 OTT에 전략적 집중 노출, 캠페인 영상촬영 게시 온라인 챌린지 진행
  - \* 유튜브(총 3편, 총 93만회), 인스타그램(763.5만회), X(27.2만회), 온라인챌린지(594건)



대학생 마약예방 교육



대학가 캠페인



대학교 상담직원 교육



자치구 연계 캠페인

**단속점검**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전방위 단속점검 실시**

○ 마약류 던지기 단속 및 불법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 추진 기간 : '25. 8월 ~ 12월
- 추진 내용 : 개강 일정에 맞춰 건국대, 외대, 중앙대, 흥익대 등 대학 인근 학생 밀집 거주지역 소재 계량기함 등 다빈도 던지기 장소 점검 및 「김대호와 함께하는 우리 집 앞 틈새 확인」 영상제작 및 캠페인 실시
- 협력 기관 : 국가수사본부 및 경찰, 자치구, 대학
- ※ 언론 홍보 : 캠퍼스 마약던지기 집중 단속 동행 취재, 36개 매체 보도



○ CCTV 통합관제센터 감시 영역 확대를 통한 마약류 유통체계 차단

- 감시 기관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25개소)
- 추진 내용
  - (서울시) 마약류 의심징후 감시 역량 지원 및 동향 파악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CCTV 감시 및 의심 시 관할 경찰서 실시간 정보공유
  - (경찰서) 마약류 의심 징후 정보 확인 시 현장 출동 및 관련 조사 실시
  - (역량강화) 주택밀집지역 등 '던지기 수법' 및 이상행위자 등 감시 요령 등 교육
- 추진 결과 : 시민 신고 및 관제요원 감시 99건, 검거 18건('23년 141건/12건, '24년 153건/14건)
- ※ 언론 홍보 : CCTV 통합관제센터 보도자료 30개 매체 보도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 현황 : 의사(2), 간호(25), 보호사(10),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 등 35명이  
입원실(10병상), 치료재활실, 상담·검사실 등(연면적 1,901.33㎡, 약 576평)에서 진료
- 운영 실적('25년 10월말)
  - (진료확대) 외래 1,601명, 입원 39명(259일)
    - ※ 7월 개소 이후 월평균 외래 243명, 입원 9명(60일)으로 개소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상담 129건, 재활 프로그램 운영 759건

○ 동행의원(중독치료 의료기관) 운영

- 현황 : 연차별 지속 확대('23년 12개구, 21개소 → '24년 12개구, 24개소 → '25년 19개구, 34개소)
  - (진료대상) 마약류 중독 자의치료자 중 청소년·20대·30대
  - (동행의원) 정신과 병의원에서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 제공
  - (지원내용) 마약류 중독자 외래진료시 동행의원에 진료지원금 지원(8만원/건)
- 운영 실적 : 401건('23년 9월~12월) → 1,239건('24년) → 2,294건('25년 9월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 내용 :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비 전액 치료보호기관에 지급
- 지원실적 : 244명, 432,921천 원('25년 10월말)

○ 마약류중독자 재활프로그램 민간기관 지원('25년 10월말)

- 현황 : 3개기관((사)희망의 집, (사)바른마음바른문화운동본부, 따뜻한삼촌)에서 자조  
모임(NA), 중독예방교육 등 마약류 중독자·가족 대상 상담·재활프로그램 운영
- 운영 실적 : 3개소 636회(24개 프로그램), 2,523명(연인원)/142명(실인원)

○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 내용 : 익명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6종을 검사
- 실적 : 검사 888건, 양성 14건 ('25년 9월말)

□ **향후계획**

○ 주택가 밀집지역 마약던지기 현장 단속 : '25. 12.

○ '26년 마약류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마약퇴치 위원회 구성 : '26. 1.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25.10.20.)

# 자치경찰위원회

#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내실화

자치경찰협력과장 : 길우근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정승화 ☎9837 담당: 최현희 ☎9839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로 인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선제적 예방교육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중점 추진

※ '23년(158건), '24년(58건), '25년 11월(81건)/'24년 11월(50건)

## □ 추진방향

-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및 홍보·첩보활동 병행 실시
- 재범 방지 및 치유 선도를 위한 전문기관 적극 연계

## □ 추진내용

### ①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특별 예방교육」 전개

- (예방교육)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 취약한 학교·학생 상대로 맞춤형 예방교육 집중 실시

※ '25년 11월 기준, SPO 범죄예방교육 2,020회(474,996명) 실시

#### ▷ [연령·학교급별]

- (초등부) 시음·낚선 사람 주는 음식 등 유사 마약 사례 관련 대응요령 중점
- (중·고등부) 다이어트 마약 및 신종유형 범죄(배달 알바 등)의 위험성과 마약의 폐해·처벌기준 등 설명을 통해 경각심 제고

#### ▷ [성별·범행동기별]

- (남) 호기심 및 마약 배달 아르바이트(던지기 등) 금지 등 중점
- (여) 다이어트·감기약 등 향정 및 의약품 오남용, 호기심 구매·투약 등 예방 중점

- (교육자료 제작) '24년 8월 행안부 시책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교세 활용, 마약류범죄 예방교육 콘텐츠(영상PPT) 개발·제작, 31개 경찰서 배포('25년 11월)



마약퇴치본부 협업, 제작

자체 제작

## ②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첩보수집 강화

- **(홍보 활동)**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SNS·캠페인 등 마약류 범죄예방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활동 전개 ※ '25년 11월, 홍보·캠페인 4,638회 실시
- **(첩보 수집)** 사이버전담 SPO(57명) 배치,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마약류 판매 광고·권유 사례 등 모니터링 강화 ※ '25년 11월, 첩보수집 71건 추진

## ③ 재범 방지 및 치유 선도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 **(사후관리 강화)** 마약 등 중독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개월간 기본 면담 후 1개월뒤 再진단 실시, 추가 면담 등 사후 관리체계 강화
- **(전문기관 연계)** 수사부서에서 마약 소년범을 통보받은 경우, 전문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 마약센터 등)에 연계하여 상담·치유 실시
  - ※廳·署 마약팀에 전문기관 연계 절차도 제작·배포('25. 8월)
- **(치유 선도프로그램 적극 연계)** 중증 마약 소년범, 재범 청소년 대상, '중독성 범죄 치유 선도프로그램\*' 적극 연계하여 상담·치유
  - ※ '26년 중독성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운영예산 2천만원(1백5십만원\*13명) 신규 편성

### \* 운영 개요

- ▶ (명 칭)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 ▶ (대 상) 도박·마약 등 중독성이 있는 청소년
  - ▶ (내 용) SPO가 도박·마약 등 중독 수준 파악·선별, 중증인 경우 전문병원\* 연계 및 심리치료 ※ 경미한 경우 SPO 자체 선도프로그램 실시
- \*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지정한 병원(現 8개소)에서 진행(지정 확대 협의 중)

### □ 향후계획

- 청소년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한 맞춤형 특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 홍보·첩보활동 활성화 및 전문기관·선도프로그램 적극 연계

평생교육국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청소년정책과장 : 주호돈 ☎2133-4110 청소년정책팀장 : 임진영 ☎4112 담당 : 최현수 ☎4113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 차단, 마약 예방을 위해 청소년 주요 행사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 및 홍보

## □ 사업내용

- 청소년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약 예방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 이하 마퇴본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계, **찾아가는 마약 예방 캠페인** 추진
- 서울시 청소년축제, 쉼터 연합 아웃리치 등 **주요 행사 개최 시 홍보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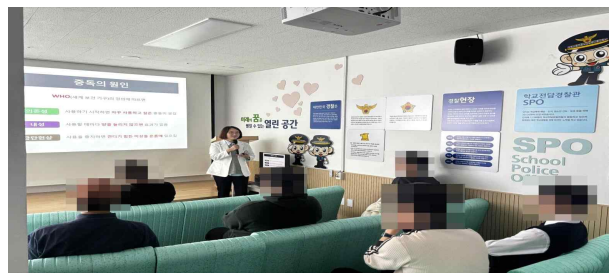
## □ 추진현황

### ① 마약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쉼터·마퇴본부·경찰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쉼터 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총1,683명 참여)
    - (온 라 인) 청소년쉼터 3개소 25명 참여(마퇴본부 홈페이지, 표준 교육과정)
    - (오프라인) 청소년쉼터 12개소 1,658명 참여
- ※ 찾아가는 마약예방교육(마퇴본부), 관악청소년경찰학교 중독예방교육(관악경찰서, 신림단기)



【 이동쉼터(서북) 대면 교육 】



【 관악청소년경찰학교 중독예방교육 】

- 「**청소년 약물 과의존 예방 및 지원 협약**」에 따른 맞춤형 교육('25.9.~12.)
    - 은평중장기쉼터(입소자 8명) 설문조사 및 약물 과의존 예방 교육 시행
      - ▶ 설문조사('25.9.) : 의료목적 외 약물사용, 금단증상 경험 등 10개 항목 ※ 조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 ▶ 상담·교육('25.12.) : 쉼터입소 청소년 개인 맞춤형 대면상담 및 교육실시
- ※ 마약 예방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은평중장기쉼터-마퇴본부) 업무협약 체결('25. 6.17.)

## 2 마약 근절을 위한 청소년 축제 · 아웃리치 등 찾아가는 캠페인 추진

- 서울시 청소년축제(성년의 날·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시 마약예방 홍보부스 운영
  - 성년의날('25.5.18.), 청소년페스티벌('25.10.18.) : 마약예방 리플릿(약 5,500개) 등 배포



【 성년의 날 】



【 청소년 페스티벌 】



- 청소년 밀집지역 '쉼터 연합 아웃리치'를 통한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총 5회 아웃리치 추진(신림·천호·홍대·노원·강서) : 마약예방 리플릿(약 2,500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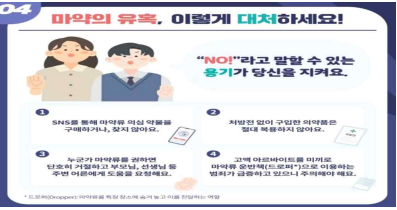
【 연합 아웃리치(신림) 】



【 연합 아웃리치(천호)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49개 시민단체) 마약예방 캠페인 추진 ('25.1.~11.)
  -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점검·단속 시 캠페인(총 2,253회)
- 서울시 청소년통합포털 '청소년몽땅' 마약예방 홍보포스터 게재 ('25.11.~12.)
  - 매 분기 마약예방 웹툰 현행화하여 게재 추진 ※ 출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 향후계획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실시 : '26. 3월~12월
  - 쉼터(19개) 입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맞춤형 대면상담 확대 추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마약예방 캠페인 추진 : '26. 1월~12월
- 서울 청소년축제, 쉼터 연합 아웃리치 마약예방 홍보 추진 : '26. 5월~12월

**민생사법경찰국**

#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신속 대응 'SNS 핫라인' 운영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2133-8805 수사분석팀장 : 오현민 ☎8820 담당: 남용우 ☎8823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2133-8807 보건복지수사팀장 : 이철명 ☎8940 담당: 이범일 ☎8963

최근 SNS·비대면 유통 등을 통한 청소년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화하여  
수사역량 강화 및 SNS 제보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함

## □ 추진배경

-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 통한 마약 유통 및 접근성 증가
  - 마약류의 은밀한 유통으로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지속 증가
    - ※ 10대 마약류 사범은 '20년 1.7%에 불과했으나 '23년 최고 5.3%까지 증가

▶ SNS를 통해 익명으로 쉽게 제보 가능한 청소년 접근성 높은 창구 필요

## □ 추진방향

- (신고) 청소년 마약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의 온라인 신고 채널 운영
  -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 운영 : 익명 청소년 마약 신고센터 개설
- (수사) 서울시 특사경의 제한된 수사권한 확대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범죄(알선·권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제한적 수사 가능

## □ 수사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제27호)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 범위에 규정된 범죄 수사(제6조)

✓ 민생사법경찰국 지명범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 (서울시) 청소년에게 영리 목적으로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만 수사권한 행사 가능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3항: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됨
- (경찰청) 일반 시민(청소년 포함)의 마약류 관련 모든 불법행위는 경찰이 직접 수사

## □ 추진현황('25. 12. 9. 현재 기준)

### ① (역량강화) 자체 직무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통한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

- 마약류 범죄 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총 4회) : '24~'25.3월
- 서울경찰청-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공조 협력 MOU 체결 : '25. 7월
- 방배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문 수사관 수사실무 협의(총 4회) : ~'25.11월

### ② (제도개선) 마약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25.3월~)

-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자 관련 범죄, 「식품위생법」 상 관리업소 내 마약류 범죄

#### < ※ 기관별 마약류 범죄 수사권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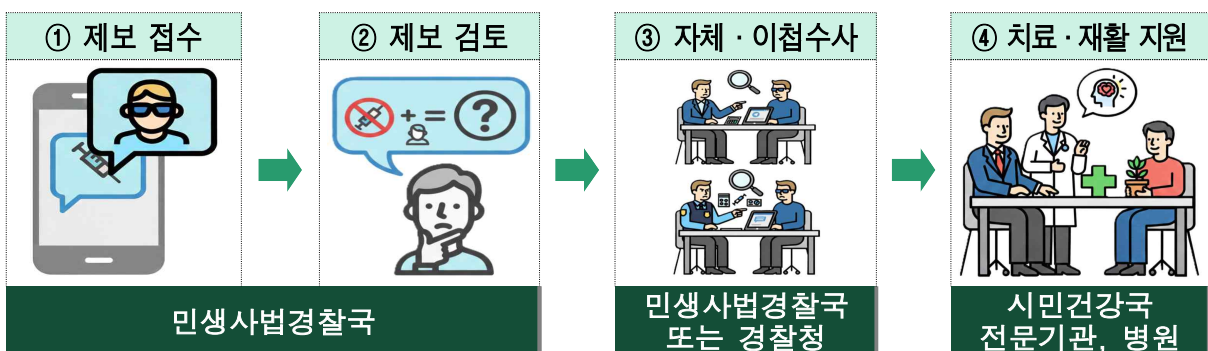
수사기관명	근거법률	수사권한	벌 칙
서울시(민사국)	청소년보호법	영리 목적으로 <u>청소년에게 마약류 구매</u> 케 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법	의료용 마약류 관련 모든 범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경찰청	제한 없음	<u>마약류 관련 모든 범죄</u> (제한 없음)	최고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③ (신고채널)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 '25. 12. 1.~

- (운영수단) 카카오톡(접수), 인스타그램·트위터(홍보)
- (주요기능) 청소년 대상 영리 목적 마약 권유·알선 행위 모니터링 및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발생 시 수사 등 공조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범죄 의심사항 상담·신고



#### < ※ 제보 처리절차 및 대응체계 >



- 접수 현황 : 제보 2건(마약 투약 의심, 해외 반입 의약품 오남용 건) ⇨ 경찰 이첩 예정

## □ 향후일정

- 학교·지역사회 대상 홍보(학교·자치구 누리집, 공보·가정통신문 등) : '25.12월~
- 수사관 마약 대응 상담기법 교육 실시(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 '26. 1월~



seoul\_official #청소년보호 #동물보호 #K패션육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번 주 #서울 정책.zip

- 1 미성년자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AI가 24시간 탐지한  
✓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성범죄를 시도하는 #온라인그루  
→ #서울안심아이(eye)가 성착취 유도 패턴 실시간 탐지  
✓ SNS-오픈채팅 등에서 위험 징후 감지 시 피해지원기

- 2 청소년 마약 고민, 익명 SNS 채널 '서마톡'으로 도움받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반 상담-신고 채널 12.1.(월)부터  
✓ 카톡인스타-X에서 클릭만 하면 즉시 #익명상담 가능  
✓ 마약 권유 유인 행위 상담-수사-치료 연계로 보호 강  
서마톡 바로가기: open.kakao.com/o/SVBFLxYh

- 3 서울시x#무신사, K-패션 차세대 브랜드 육성 위한 M  
(12.5)  
✓ 신진 디자이너-봉제업체 일감 매칭 플랫폼 구축

서울시  
12월 5일 오후 04:00

이번 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서울 정책!

#청소년마약대응 #동물보호의료지원 #K패션육성 등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번 주 #서울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 1 미성년자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AI가 24시간 탐지한다!  
✓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성범죄를 시도하는 #온라인그루밍 예방!  
→ #서울안심아이(eye)가 성착취 유도 패턴 실시간 탐지  
✓ SNS-오픈채팅 등에서 위험 징후 감지 시 피해지원기관에 즉시 알림

<서울시 인스타그램>

<서울시 블로그>

120다산콜센터  
@120seoutcall

[채널정보]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주저 말고 서마톡 에 이야기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 ⇒ [han.gl/dHFM2](http://han.gl/dHFM2)



서울시 청소년 마약 고민, 익명으로 SNS 상담받아  
요

동행 2025. 12. 1. 18:00 +이웃추가



<서울시 다산콜센터 X(트위터)>

<서울시 카카오톡스토리>



청소년 마약 고민 '서마톡'으로... 서울시, 전국 첫 SNS 익명 신고 채널 운영  
최근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기  
서울신문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오버일 | IT\_과학>보안 2025/12/01 한태환 한태환 기자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 AI로 잡는다...청소년 마약 고민도 SNS 상담창구 열어  
마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과 마약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공지능  
경향신문 IT\_과학>인터넷\_SNS 2025/12/01 주영재 기자 jy@kyunghyang.com



[서울] 서울시, SNS 익명 대화로 마약에서 청소년 보호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반의 익명 상담 채널 '서마톡'  
YTN 사회>교육\_시행 2025/12/01 김진우



서울시, "청소년 마약 신고-상담" 오픈채팅 개설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KBS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오버일 | IT\_과학>보안 2025/12/01 KBS



서울시, 청소년 마약 익명 신고채널 '서마톡' 전국 첫 가동  
[이태일외의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  
이태일외 IT\_과학>인터넷\_SNS | 사회>사회일반 | IT\_과학>오버일 2025/12/01 이영민



서울시, 청소년 마약 고민 SNS 익명 대화로 상담한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  
경향신문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오버일 | IT\_과학>보안 2025/12/01 주영재 기자 jy@kyunghyang.com



[12월 1일(월) 오늘, 서울시] 보호료-대중교통 할인...손목디터9988 혜택 개편  
1. 손목디터9988 수락률 본격 가동...  
데일리안 사회>환경 | 사회>경제인 2025/12/01 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hcy@daian.co.kr)



청소년 마약... "SNS 익명"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아시아경제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오버일 | IT\_과학>보안 2025/12/01 배경환



서울시, 전국 최초 청소년 익명 마약 상담-신고채널 '서마톡' 개설  
SNS 기반 실시간 익명 상담...  
문화일보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보안 | 사회>경제인 2025/12/01 조한



청소년 마약 퇴치 역발상...마약 '통로'를 거꾸로 이용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확산의 주요 경로인 SNS를 역이용한 대응책을 내놨다...  
노컷뉴스 IT\_과학>인터넷\_SNS | IT\_과학>보안 | IT\_과학>오버일 2025/12/01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권민철

<언론 보도현황>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추진 현황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 김허중 ☎399-9599 학교보건팀장: 전영희 ☎9576 담당: 최경수 ☎9662  
담당: 나현수 ☎9680

## 1 마약 예방 교육 현황

### □ 사업 개요

#### ○ 목적

- 불법 마약 및 유해 약물의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고 올바른 건강 선택 역량 강화
-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함양 및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교육부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 지침,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 ○ 주요 내용

- (학교)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하여 교육
- (학생)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하여 학생 교육 지원, <초6, 중3, 고3> 학생 대상 전환기 교육 및 학교급별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직원, 학부모) 서울시, 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직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 (유관기관) 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업무 협력

## □ 마약류 예방 교육 현황

○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근거 및 시간

- 교육은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 교과**, **관련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실시

###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시간>

구 분	연간 교육 시간(연간)			비고
	초	중	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6	7	약물 오남용 교육 포함
학교보건법 (교육부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지침)	17			1개 학년 보건교육 시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10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포함

○ (최근 3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현황

구 분	전체 학교수	마약류 등 예방 교육 운영 학교수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1,314	1,314(100%)	604	389	321
2024년	1,310	1,310(100%)	605	387	318
2025년	1,311	1,311	2025.12월 교육 현황 수합 예정		

※ 모든 학교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완료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학교급별 예방교육 운영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25. 연중	초·중·고 전체 학교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약사·퇴직교원·변호사 등)	'25. 연중	1,500학급
A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초6)	'25. 7.~10.	210학급
메타버스 예방 교육 지원(중3)	'25. 11.~12.	100학급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 지원(고3)	'25. 12.	14교
마약류 담당교원 연수(상·하반기)	'25. 2./10.	2회
학부모 연수(오은영 박사 특강)	'25. 3.	900명
가정 연계 가정통신문 발송(교육청 일괄)	'25. 연중	4회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운영	'25. 연중	4교(초 2교, 고 2교)

□ 추진 현황 및 실적

○ 업무협약(2023년, 2025년 2차례 추진)

- [1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 체결(2023.6.19.)

[협약 내용]

- ▶ 협약목적: 마약류 범죄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학교 내 마약류 예방 교육 총괄 추진, 교직원·학부모·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교육홍보, 마약검사 및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단속점검 등 전 단계 사업추진
  - (서울경찰청) 마약류 단속점검, 청소년 등 마약사범 연계,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 지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2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의사회-저스피스재단-서울주요대학(20개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25. 6. 23.)

## [협약 내용]

▶ **협약목적:** 청(소)년 마약류 예방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마약류 대응 협력체계구축, 단속점검, 대응예방, 치료재활
- (서울경찰청) 청소년 마약투약자 서울특별시 마약관리센터연계
- (서울시의사회) 청소년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역기반 구축
- (저스피스 재단) 청소년 마약 예방 문화활동을 통한 캠페인 확산
- (주요대학 20교) 대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연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전문 강사 활용 학생 교육 지원**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중(중·고등학교 1,500학급)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와 협업하여 학교 교육 지원 중(총 3,000학급)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급별 교육자료 보급(식약처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자료 10종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 교원용 지도서 보급(교육부 제작)
- 전환기 교육으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 AI활용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42교, 210학급)
  - 중학교 3학년 대상 메타버스 활용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15교, 100학급)
  -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후 마약류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14교)
- ※ 고3 대상 마약 수사관을 통한 실제 사례와 범죄 예방 중심 교육 및 문화 공연을 통한 인식 개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4교 운영 중

건강증진학교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

※ 운영 주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초 2교, 고 2교 운영 중)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강화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2025. 2.)
-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개발·보급(총 2종)
- 학부모 대상 온라인 연수 운영(2025. 3. 25.(화)/ 오은영 박사)
- 학부모 대상 가정연계 가정통신문 안내(4회)
- 관리자 대상 연수(교장, 교감 자격 연수 시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 학교급별 교육자료 안내 및 활용법 연수 예정(2026. 1.)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12. 10.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강사 운영, 교육자료 개발, 연수 운영 등)	281,820	157,000	438,820	377,790	355,290 (94)	2025. 12. 19. 지출 완료 예정
합계	281,820	157,000	438,820	377,790	355,290	

□ 참고 자료

○ 전환기 교육 지원



초6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중 3 대상 메타버스 활용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마약이란?	나비약?
<p><b>의료용 마약</b> : 처방전</p> <p>진통요과를 이용, 알기 어렵지 통증치료 등</p> <p><b>펜타닐, 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뎐 등</b></p>	<p><b>불법 마약</b></p> <p>의학적용도 외 환각작용을 위하여 남용하는 약물</p> <p>▶내성 :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여량 증가 ▶의존성 : 과도한 도파민 분비 후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금단현상 : 뇌와 몸에서 기억하고 마약은 요구(니르톨)</p>
<p><b>마약을 하는 이유?</b></p> <p>▶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작용으로 강한 쾌락과 안락감, 강력한 진통작용 ▶현실도피 및 환락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 시작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음</p>	

**던지기 수법**

▶ 마약류 판매자가 필요폰, 대마 등 마약류를 일정한 장소에 은닉  
▶ 마약류 대금이 입금되면, 마약 은닉 장소의 좌표에 대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매수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찾아 가도록 함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마약류 예방 강의(마약수사대 경감 강의)

## 2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현황

### □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개발 근거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체계에 따름  
※ [붙임] 참조

### □ 교육자료 배부 현황

- 2024~2025년도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현황

년도	내용	비고
2024	-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교육자료 배부 ※ [붙임] 참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체계에 따름
	- 예술작품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총 6종)	
	- 카드뉴스, 동영상 등 총 11종	
2025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중·고등용 10종 개발 - 동영상 2종 - 교육부 교육자료 배부(중 6종, 고 7종)	

- 2025년도 교육부 마약류 교육자료

구분	학습주제	주요 교육내용
초	- 마약류 특성 및 부작용	-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범죄 연루 대처법
	- ADHD치료제 오남용 예방	- 메틸페니데이트 특성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시 부작용
중	- 마약류 특성 및 부작용	-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범죄 연루 대처법
	- ADHD치료제 오남용 예방	- 메틸페니데이트 특성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시 부작용
	- 식용억제제 오남용 예방	- 식용억제제 특성 - 식용억제제 오남용 시 부작용
고	- 마약류 특성 및 부작용	-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범죄 연루 대처법
	- 마약성 진통제 특성	- 마약성 진통제의 특성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시 부작용
	- ADHD치료제 오남용 예방	- 메틸페니데이트 특성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시 부작용
	- 식용억제제 오남용 예방	- 식용억제제 특성 - 식용억제제 오남용 시 부작용

## □ 운영상 고려 사항

### ○ 학교 현장 중심 운영

- 학교 특성과 강사 전문성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다양하게 운영
- 관련 교과(체육, 기술·가정 등)나 창의적 체험활동(안전교육) 시간에서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연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은 다양한 교육 주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약물·마약류 예방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보건수업 시간 중심으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운영

### ○ 콘텐츠 최신화 필요

- 신종 마약, 온라인 유통, SNS 유혹 등 대응 콘텐츠 보완 필요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 마약류 중심 콘텐츠 집중 필요

## □ 향후 개선 방안

### ○ 마약류 중심 교육자료 강화

- 마약류 특성 및 피해 중심의 자료 구성 강화
- 실제 사례 기반 및 사이버 유혹 대응 자료 개발
- 법적 책임 및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학습자료 개선

### ○ 신종 마약디지털 접근 대응 콘텐츠 개발

- SNS·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혹 및 거래 시도 대응 교육 강화
- 경찰·식약처·퇴치운동본부 협업으로 최신 사례 정보 상시 반영

### ○ 가정-학교 연계 예방시스템 강화

- 학부모 대상 카드뉴스 및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배포 확대
- 학교·가정 간 상시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한 생활 속 예방 강화

### ○ 교육 실효성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식약처, 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한 정기적 성과 분석 실시
-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설문과 그 분석을 다음 학년도 교육자료 개선에 반영

※ <참고> 학부모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인식도 조사 결과(2025. 11. 22. 104명 대상)

2.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흡연 예방 교육이 자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답변 104 · 미답변 0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객관식

3.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마약류·흡연 예방 교육이나 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104 · 미답변 0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4. 학생들의 흡연(전자담배 포함)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104 · 미답변 0

항목순 · 답변 많은 순



**붙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체계(별표)**

약물 중독 예방 내용 체계

영역	소분류	초등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약물 중독 예방	마약 등 약물류 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의 의미와 작용 과정, 종류 알아보기</li> <li>• 약물 오남용의 의미와 위험성 알아보기</li> <li>•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보관 및 폐기 방법 알아 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li> <li>•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해약물 사용 거절법 알아보기</li> <li>• 마약류의 개념 및 폐해 알아보기</li> <li>• 마약류 위험성 탐색하기</li> <li>•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방법 토의하기</li> <li>• 신종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 파악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과 마약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 탐색하기</li> <li>•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경로와 처벌규정을 탐색하고 위험성 인지하기</li> <li>• 신종마약류 위험성 알아보기</li> <li>•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하기</li> <li>•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알아보기</li> <li>• 국가별 마약범죄 처벌 규정 알아보기</li> </ul>
	흡연 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 상식 점검 및 흡연 실태 조사하기</li> <li>• 담배의 유해성분과 유해성 알아보기</li> <li>•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의 필요성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성분 탐색을 통해 위험성 분석하기</li> <li>• 청소년 흡연 시작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하기</li> <li>•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고 캠페인 실천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이 청소년기 성장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 탐색하기</li> <li>• 담배의 유해성분을 조사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li> <li>• 금연 전략을 세우고 동기 유발 방법 토의하기</li> </ul>
	음주 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의 부작용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li> <li>•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li> <li>• 잘못된 음주 문화와 건전한 음주 문화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 관련 사고 및 질병을 조사하고 음주 폐해와 대처 방법 알아보기</li> <li>•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위험성 인지하기</li> <li>• 주변 사람들에게 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주 캠페인 실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 성분을 이해하고 알코올 섭취가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 탐색하기</li> <li>•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을 탐색하고 금주 캠페인 방법 토의하기</li> <li>• 음주 예방 방법 탐색 및 실천 전략 탐색하기</li> </ul>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인의 의미와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 알아보기</li> <li>• 고카페인식품의 위험성 알아보기</li> <li>•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과 카페인 중독 예방 방법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권장 카페인 섭취량을 조사하고 카페인의 효과 알아보기</li> <li>• 나의 카페인 섭취 습관 분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인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탐색하기</li> <li>• 1일 카페인 섭취량을 파악하여 건강한 식습관 실천하기</li> </ul>

**별표1**

##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시간	초 등 학 교	12	11	8	5	5	6	2	2
	중 학 교	10	10	10	6	4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7	3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 마약퇴치 홍보(캠페인 등) 현황

### □ 사업 개요

#### ○ 목적

- 청소년·지역사회의 마약 문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약 퇴치 환경 조성

#### ○ 근거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유관기관 업무협약(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 주요 내용

-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업무협약(1, 2차)
- 지하철 전광판·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유튜브 홍보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운영
- 서울가족 북웨이브, 진로교육박람회 등을 통한 학생, 학부모 등 시민 참여 행사 부스 운영

###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	'25. 5.~6.	학생 479명 참여
지하철 전광판 홍보	'25. 5.~6.	2호선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홍보	'25. 5.~6.	서울 스마트보드 활용 아파트 전체
서울가족 북웨이브 행사 부스	'25. 6.	학생, 학부모 550명 참여
진로교육박람회 부스	'25. 7.	학생 314명 참여
학부모 시민 행사 부스	'25. 11.	학부모, 시민 대상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영상 제작	'25. 12.	학생, 학부모, 시민 대상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탑재	'25. 연중	총 6종 제작·탑재

□ 추진 현황 및 실적

○ 홍보 및 캠페인

- 서울가족 북웨이브(2025. 6. 14) 행사에 마약·흡연 예방 부스 운영: 550명 참여
- 지하철(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드 홍보(2025. 5.~6.)
- 진로교육박람회 ‘마약 예방’ 부스 운영(2025. 7. 16.~7. 19.): 314명 참여
-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부스(2025. 11. 22.): 354명 참여
- 지하철(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드 홍보 영상 제작
- 마약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등 활용하여 홍보
- 학생 참여 마약류 예방 공모전 작품 활용하여 지하철 홍보

○ 공모전(보건안전진흥원 주관)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실시(2025. 5.~6.)
- 초중고 학생 479명이 참여하여 우수 작품 선정 및 시상(최우수 3, 우수 6, 장려 9)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확대
  - 지하철(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드 홍보 예정
  -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주기적 발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12. 10.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마약류예방캠페인및문화조성	65,330	0	65,330	30,330	29,630 (98)	29,630 (98)	
합계	65,330	0	65,330	30,330	29,630	29,630	

□ 참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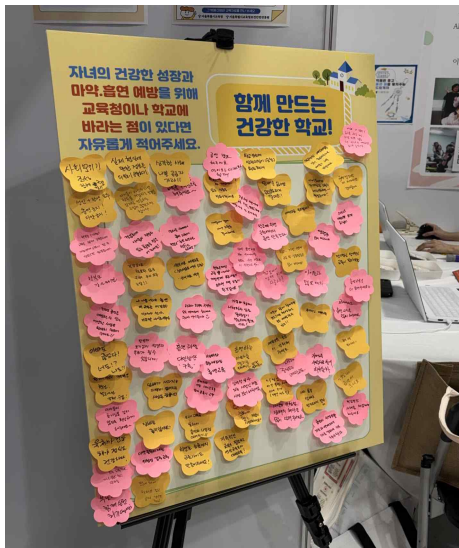
지하철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 일부(2호선, KT설치 모니터)



북웨이브 마약류 예방 홍보 부스(550명 참석)



진로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학생 314명 참석)



학부모 시민 대상 홍보 운영(354명 참석)